

한국어촌어항협회장 인사문

“수산(水産)의 의미 재정립하여 어촌 어항 발전 이룰 터”

공 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어촌어항협회 정기총회
○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부 주성호 수산
정책국장님과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수산업의 기반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2005년 12월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발족한 후 1년여 동안 수산전문 공공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저희 협회는 어촌어항 발전의 근간이 될 “어촌어항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 수립” 업무도 착수하였
습니다. 이와 함께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정부로부터 수탁
하여 어업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또한 “다기능해양정화선” 및 “어항청소선” 운영과 함께, 생산
의 장(場)인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
고 있습니다.

어촌관광 분야에서도 “해양관광 포털 바다여행”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어촌 관광 진흥을 선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도시인들에
게는 어촌 어항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수산(水産)’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
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 수산업은 무한할 것 같은 “해양 생물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만 전념하던 1차원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산’이란 “물을 이용하는 산업”으로 확대 해석
되고 있습니다. 해저에서 표층까지, 또 생물자원에서 물류, 광물, 에
너지, 문화자원까지 물, 즉 수계(水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총괄하
는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 어촌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어촌 어항 어장을 연계한 수산업의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연안역 개발의 기초가 될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어장의 정화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일
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설립한 “어촌문화관광센터”를 활성화하여,
어업인의 어촌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촌지역 “문화 발
굴 및 창달”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각오와 의지를 서로 확인하고 굳게 맹세하
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저희 협회가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치사

“명실상부한 어촌 어항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자리”

평 소 존경하는 배평암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원 여러분!

먼저 오늘 뜻깊은 한국어촌어항협회의 2007년도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초청해 주신 배평암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어촌어항의 발전에 힘
써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기존의 어항협회를
모태로 새롭게 출범하여 다각적인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어촌
어항 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국가어항의 안전점
검, 어항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과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을 전개하
는 등 명실상부한 어촌어항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어촌어항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어촌과 수산업은 국내외의 환
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어촌과 어업인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다각적인 노력
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수산업 전체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어촌어항 부분은 지난
해 보다 175억원이 증액된 2,635억원의 예산을 올해 투입하여 어

촌어항 기반시설과 관광어촌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 및 지방어항의 우선완공을
기하는 한편, 최근 어촌관광 수요 증가에 부응한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2009년까지 관광어촌의 모델지역 24개소를 조성할 계
획입니다.

그리고 해양레저형·휴양형 등 다양한 기능의 어촌모델을 새
로이 개발하는 등 어촌관광 및 정주여건 확충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어촌관광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올해 말까지 500사 500촌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를 촉
진하는 등, 도시와 어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어촌 어항인 여러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경험과 적극적인 협조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총회를 계기로 여러분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력과 생
동감 넘치는 추진력을 결집하여 올 한해가 어촌어항 발전에 큰 족
적을 남기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한국어촌어항협회 2007년도 정기 총회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